

수령형상영화문학의 문학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 성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인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에서 높이 내세워져야 한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품모를 크나큰 감동 속에 따라배우게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09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이 진실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감동깊게 안겨오게 하자면 수령형상영화문학의 문학성을 높여야 한다.

수령형상영화문학의 문학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돌구는 방향에서 인간학적인 종자를 심고 깊이있게 해명해나가는것이다.

수령형상영화문학창작에서 수령의 혁명력사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실재한 자료를 기록주의적으로 복사하거나 수령의 형상만 잘하면 된다는 일면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자탐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수령의 혁명활동과정에는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마련이다. 그러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이 문학예술작품에서 순수 실무적인 문제로만 제시되고 인간학적인 문제로 되지 못한다면 수령형상영화문학의 문학성을 높일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그 사상교양적가치마저 떨어뜨릴수 있다.

만일 수령형상영화문학창작에서 종자를 똑바로 쥐지 못하고 력사적자료들을 기록주의적으로 라렬하거나 수령의 위인상만 잘 형상하면 된다는 일면적인 관점에서 인간학적인 종자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를 하지 않는다면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수령의 위인적인 품모를 보여주어야 할 작품전반에서의 형상적초점이 흐려지고 일반적인 덕성이야기로 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영화문학의 종자는 인간학적인 종자로 되어야 한다.

수령형상영화문학의 종자가 인간학적인 종자로 된다는것은 수령앞에 제시된 사회정치적문제가 마땅히 인민대중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 아름답고 숭고하며 참된 삶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인간문제로 되어야 하며 그것이 구체적인 인간의 성격과 생활로 펼쳐보일수 있도록 미적리상을 체현한 종자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혁명영화문학 《잊을수 없는 나날에》의 종자를 들수 있다.

작품은 새 조국건설시기 당창건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력사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의 복잡다단한 환경속에서 혁명대오의 분렬을 막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모두 망라하여 공산당을 내올데 대한 독창적이며 현명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작품은 이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각

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었다는 인간학적인 종자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인간학적인 종자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적의 편에 서있던 고재웅과 같은 청년들까지 교양개조하는 혁명가로 자라나는 박진남의 운명발전에 대한 이야기와 혁명가유자녀 보배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수 있었다.

이처럼 수령형상영화문학창작에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앞에 나서는 사회정치적문제, 사회정치적사변들을 반영함에 있어서 인간학적인 종자를 옹바로 심고 깊이있게 해명해나가야 인간학의 본성에 맞게 영화문학의 문학성을 높일수 있다.

수령형상영화문학의 문학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수령의 인간적품모를 감명깊게 잘 보여주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을 그린다고 하여 한 작품에서 수령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품모를 전면적으로 다 보여줄수는 없다.

작품에 제기된 주제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어느 한 력사적단계와 계기, 어느 한 생활분야에 국한시켜 수령의 불멸의 업적과 천출위인상의 한 측면을 형상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수령의 인간적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선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 인민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수령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잘 그려야 한다.

수령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잘 형상하는것은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혁명의 수령이 지니고있는 천품이다. 그것은 인간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무한한 창조적능력의 소유자로 보고 사랑하며 그의 존엄과 인격적가치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인간적품모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실례로 혁명영화문학 《조선의 별》(제3부)을 들수 있다.

작품에서 차광수는 위대한 수령님께 항상 마음속깊이 새겨두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좌우명이 무엇인가고 묻는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평시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적도 창조할수 있는데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좌우명은 그 인간을 잘 알아야 한다는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김혁과 설은주의 사랑을 위하여 돈화에서 200리 밤길을 찾아와 동지애의 참뜻을 깨우쳐주시였고 혈육들마저 꺼려하는 병을 앓고있는 소심선생을 찾아 꺼져가는 인생에 생의 활력을 부어주신다.

인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만이 아니라 사상과 정견이 다르고 주의주장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고 따르게 하는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였다.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여 종파의 더러운 야욕때문에 속에 충을 품고 찾아왔던 설송파는 그이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며 자기들의 지휘관이며 전우였던 최창걸을 살해한 독립군들조차 위대한 수령님을 끝까지 믿구 어디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맹세해 나선다.

인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광수와 박도범에게 우리가 사람을 믿자구 하는게 돈밖에 계산할줄 모르는 사람같지 않은 백만장자들을 믿자는게 아니라 조선인민을 믿자는것

이라고, 우리가 인민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믿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다.

이처럼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들의 리익을 위해 생을 바치는데 삶의 참된 보람이 있고 혁명가의 행복이 있다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적품모의 본질이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간적품모를 형상하는데서 특히 힘을 넣어야 할것은 아이들, 혁명의 미래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위인적품모를 감동깊게 그려내는것이다.

혁명영화문학 《미래를 꽃피운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민생단》투쟁의 후과로 종파분자들의 박해를 받던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사연깊은 돈 20원으로 그들에게 새 옷을 해입히시는 전설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에서는 특히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아이들의 소원을 심중히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대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는것은 력사에 없는 일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혁명앞에 지닌 우리들의 엄숙한 의무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에로의 진군길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숭고한 후대관을 진실하면서도 감명깊게 잘 형상하였다.

작가들은 수령형상영화문학을 창작할 때 이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 후대들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간적품모에 제일 큰 주목을 돌리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의 모진 시련을 많이 겪어온 수령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실례로 혁명영화문학 《조선의 별》(제7부, 제8부)에서 형상된 남만으로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의 리별장면과 객주집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동생과의 리별장면들을 들수 있다.

량강구 이도백하기슭을 거니시며 어머니를 끝없이 그리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정의 세계, 불쌍한 조선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하신 어머니의 당부를 되새겨보시는 수령님의 사색의 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한 장면과 혁명의 어머니를 잃은 절통함에 몸부림치는 대원들 앞에서 하시는 수령님의 연설장면 등은 관중들로 하여금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존경, 흠모의 정을 자아내고있다. 혁명의 수령은 조국과 민족, 인민의 의사와 념원의 최고대표자일뿐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향도자,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이다. 수령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에 기초할 때만이 수령형상영화문학창작에서 수령의 인간적인 측면도 보다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다.

또한 수령의 매혹적인 인간적품모를 잘 그려야 한다.

수령이 지니고있는 인간적품모의 개성적인 측면을 잘 형상하는 문제는 수령형상영화문학창작에서 수령의 인간적품모를 잘 형상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고계시는 매혹적인 인간적품모에서 중요한것은 만나면 누구나 순간에 마음이 끌리는 비상한 견인력이다.

실례로 혁명영화문학 《조선의 별》(제3부)을 들수 있다.

작품에서는 만나자바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허물없는 《동갑이》사이가 되는 시얼바우(홍

동무)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상한 건인력, 뜨거운 인정미를 잘 보여주고있다.

적들의 추격을 받으며 부상당한 차광수를 데리고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룡근방의 숲속에서 머리칼이 더부룩한 총각(시얼바우)을 만나게 되신다. 총각에게 믿음이 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가이 다가가신다. 낯선 손님을 보고 경계하던 총각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마음의 탕개를 풀고 순박하게 생긴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까지 담으며 《동갑이》를 따라나선다. 그후 시얼바우는 《동갑이》와 같이 가면 《동갑이》와 신통히도 같이 생긴 혁명군의 유명한 대장어른을 만날수 있다고 했다는 차광수의 말을 외우며 그분을 꼭 만날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군의 대장이시기 전에 순박한 시얼바우의 《동갑이》가 되신것이 더 즐거우신듯 소탈하게 그와 즐거운 룡담을 주고 받으신다.

이밖에도 동지들과 함께 기타를 타며 인생의 좌우명에 대하여, 청춘의 사랑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시고 유정한 달밤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부르시며 어머니를 그리시고 부르조아출신이라고 하여 안해를 멀리 하는 소심선생에게 자기 안해를 동지가 될수 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타이르기도 하신다. 뿐만아니라 푸르허마을에서 공작하실 때에는 온성집의 《머슴》으로 들어가시어 우물가의 얼음을 까달라는 동네아주머니들의 무릅없는 청도 쾌히 들어주신다.

수령형상영화문학창작에서는 이처럼 혁명의 수령이 지닌 인간적인 풍모를 여러 측면에서 감명깊게 그려낼 때 문학성을 높일수 있다.

수령형상영화문학의 문학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측근인물을 수령에 대한 충정을 성격적책으로 간직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리는것이다.

수령형상작품에 등장하는 측근인물은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매혹되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인간, 헌신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형상되어야 한다.

실례로 혁명영화문학 《조선의 별》(제8부)을 들수 있다.

작품에서 차광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충정의 인간, 열혈의 인간, 아름다운 인간으로 형상되었다.

일제의 모략으로 중국인 반일부대와외 통일전선이 위협에 처하게 된 시기 차광수를 주영장부대에 파견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기자신을 남을 위해 바치면 상대편도 그만큼 뭔가 보답하는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간생활에서의 사랑과 믿음의 법칙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긴 차광수는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끝끝내 불신과 번민속에서 일제의 모략에 빠졌던 주영장을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하여 반일통일전선에 나서게 한다.

차광수는 주영장부대에서의 공작을 통하여 원쑤가 아닌 사람은 그가 누구든 벗으로 만들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신념앞에 다시금 머리를 깊이 숙이게 되며 그리운 사령관동지의 품으로 마음달린다. 그러나 적들의 대병력이 혁명의 사령부로 쏘리고있는것을 목격한 순간 차광수와 그의 공작대성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적들의 앞길을 막아나섰고 오로지 사령부의 안녕만을 바라며 목숨도 아낌없이 바친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는 방패가 되고 성새가 된 차광수의 형상을 통하여 비록 육체적생명은 짧아도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삶은 영생한다는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주었고 수령을 충정으로 받드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더욱 감동적으로 받아안을수 있게 하였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새 세기 영화혁명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깨끗한 충정과 열화같은 흠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화화면에 담는 역사적이고도 책임적인 사업을 잘하여 혁명영화를 명실공히 혁명적대작으로, 력사에 길이 남을 대결작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